연중 제19주일 복음 나누기

"나는 생명의 빵이다."(요한 6,48)

1. 성호경
2. 시작성가(생활성가를 추천합니다)
3. 자기소개와 한 달의 삶 돌아보기(각자 어떻게 지냈는지 발표합니다)
4. 준비기도<각자 자유롭게>
5. 독서 (성경읽기 Ⅰ) - 요한 6,41-51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41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
42 그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43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마라.
44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45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46 그렇다고 하느님에게서 온 이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에게서 온 이만 아버지를 보았다.
47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48 나는 생명의 빵이다.
49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50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51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세밀한 독서 나눔

- 한 사람이 성경을 큰 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다 같이 큰소리로 읽어도 좋습니다)
- 모두 들은 후, 각자가 성경 말씀을 한 절, 한 절 세밀히 읽습니다.
- 처음부터 단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읽습니다. 의미 있는 단어, 반복되는 어휘나 문장을 주의 깊게 읽으며, 성경의 다른 곳에 그 말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지 기억하도록 합니다.(약 5분 정도)
- 한 사람씩 특별히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u>아주 천천히 세 번씩 반복하여</u> 외칩니다.
- 단어나 구절을 선택하게 된 동기를 돌아가며 발표합니다.
- 세밀한 독서가 끝나면 성경 해설 부분을 서로 돌아가면서 천천히 읽습니다.

< 성경해설 >

복음의 말씀은 '생명의 빵'에 대한 예수님의 계시담화입니다. 복음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본다면, 41-46절과 47-51절입니다.
전반부인 41-46절에서 유다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불신의 이유를 그분의 신원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우리가 '아는 것과 보는 것'이 실체의 전부일까요? 유다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빵', 곧 하느님과 관련된 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거나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41절) 그들은 자신이 '아는 것과 보는 것'에 묶여,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가?' 하며,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파견되어 오신 분', 곧 메시아라는 것을 수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41-43절)
광야 40년을 헤매며 목마름과 허기짐 그리고 전쟁의 두려움 앞에서 하느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처럼(탈출 15,24; 16,2.7.12; 17,3; 민수 11,1; 14,2.27) 유다인의 불신은 '수군거림'으로 드러납니다.(요한 6,41) 어쩌면 이들의 불신은 지극히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땅에 시선을 두고 땅의 가치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유한한 것을 넘어 무한한 것을 보고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하십니다.(요한 6,44ㄱ; 참조: 사도 8,28-31) '이끌어 주다.'라는 것은 주체가 '가르치고 인도'하면, 객체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사람'이 '이끄는 분'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요한 6,45)고 하십니다.
'듣다.'라는 것이 아버지와의 친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적인 경청이라면 '배우다.'라는 것은 들은 것을 삶 안에서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느님과 긴밀한 친교 속에 머무는 사람은 하느님의 인도를 받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온 아들만이 아버지를 보았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를 계시할 수 있습니다.(6,46; 참조: 12,45; 14,8-9)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후반부인 47-51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빵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만나'와 같이 먹고도 죽는 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생명의 빵'입니다. 이 생명의 빵은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아 "누구나"(45ㄴ절), "누구든지"(51ㄴ절) 먹으면 영원히 살게 하는 보편적이고 열린 구원의 빵입니다.
엘리야 예언자가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빵을 먹고 힘을 얻어 밤낮으로 40일을 걸어 하느님의 산 호렙에 도착한 것처럼(1열왕 19,5-8)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생명의 빵',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은 우리의 일용할 영적 양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요한 6,48.50-51)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줄 새로운 양식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51ㄷ절)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커다란 사랑이기에 자신을 송두리째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일까요? '나의 살'에는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이 담긴 사랑과 죽음 그리고 당신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이 보입니다.(3,13-16 참조) 그러므로 믿는 이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6,44ㄴ) 종말론적인 구원자께서 지극한 희생과 사랑을 양식으로 삼고자, 당신의 '살'을 먹는 이들의 나날을 하느님 아버지의 구원에로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 묵상나누기

(말씀 나누기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특별히 체험 발표를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 미사 중 성찬의 전례 때에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시고 난 후의 느낌이나 성체에 대한 나의 믿음을 나눠 주십시오.

6. 되새김(성경읽기 II)

☞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며, 기도와 관심 그리고 실천을 위해서는 되새김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다른 누군가가 또다시 큰 소리로 읽습니다.

7. 마침기도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8. 안건토의

9. 기타토의(공지사항)

10. 마침성가(생활성가를 추천합니다)